

보통 · 생각해서 풀기 (9~16번)

9 보통 “누나는 시험에 붙어서 싱글벙글 웃었어요.”에서 ‘싱글벙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 ① 화가 나서 얼굴을 찡그리는 모양
- ② 눈과 입을 벙긋거리며 소리 없이 환하게 웃는 모양
- ③ 슬퍼서 우는 모양
- ④ 졸려서 하품하는 모양

10 보통 “비가 그치자 하늘이 말끔하게 개었어요.”에서 ‘개었어요’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 ① 흐려졌어요
- ② 어두워졌어요
- ③ 천둥이 쳤어요
- ④ 맑아졌어요

11 보통 “동생은 무서운 영화를 보고 오들오들 떨었어요.”에서 ‘오들오들’은 어떤 모양인지 짧게 쓰세요.

답: _____

12 보통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우리 집 강아지는 몸집이 아주 자그마해서 내 품에 꼭 안겨요.”

→ ‘자그마하다’는 ‘조금 ’는 뜻이에요.

13 보통 “형은 밤새 숙제를 하느라 몹시 고단해 보였어요.”에서 ‘고단해’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 ① 몸이 지쳐서 힘이 없어
- ② 기분이 아주 좋아
- ③ 배가 몹시 불러
- ④ 키가 아주 커

14 보통 “교실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선생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에서 ‘소란스럽다’는 ‘아주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 O ☒ X

15 보통 ‘맨-’의 뜻을 생각하며, 안경이나 망원경 없이 그냥 보는 눈을 뜻하는 낱말을 쓰세요.

답: _____

16 보통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앞뒤 문장을 살핀다
- ② 낱말을 아는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
- ③ 글자 모양이 예쁜 뜻으로 정한다
- ④ 비슷한 말을 넣어 읽어 본다

도전 · 한 걸음 더 (17~20번)

- 17 도전 다음 글에서 ‘양상한’의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겨울이 되자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서 나무에는 양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 ① 잎이 무성하고 싱싱한 ② 꽃이 활짝 핀
③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④ 잎이 다 떨어져 가지만 남아 쓸쓸한

- 18 도전 “민수는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어요.”
‘쿵닥쿵닥’의 뜻을 짐작하고, 어떤 단서를 보고 짐작했는지 쓰세요.

- 19 도전 ‘헛걸음’을 ‘헛-’과 ‘걸음’으로 나누어 뜻을 짐작해 쓰세요. (‘헛-’은 ‘보람 없이, 쓸데없이’라는 뜻을 더해요.)

- 20 도전 “아빠와 낚시를 갔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허탕을 쳤어요.”
‘허탕’의 뜻을 짐작해 짧게 쓰세요.

답: _____

1. ② 앞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문맥’이라고 해요. 문맥에 낱말의 뜻을 알려 주는 단서가 있어요.
2. 0 앞뒤 문장(문맥)을 살피면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어요.
3. X 짐작은 틀릴 수도 있어서 국어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4. ① ‘눈사람’은 ‘눈’과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눈으로 만든 사람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5. 가방 책가방 = 책 + 가방. 책을 넣어 다니는 가방이에요.
6. ③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이라는 뜻을 더해 주어요. 그래서 맨발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이에요.
7. 자연스러우면 짐작한 뜻을 넣어도 문장이 자연스러우면 뜻을 잘 짐작한 거예요. ‘어울리면’도 정답이에요.
8. 1-나, 2-다, 3-가 낱말을 아는 부분으로 나누면 뜻을 짐작할 수 있어요.
9. ② ‘시험에 붙어서’, ‘웃었어요’라는 단서를 보면 기쁘게 웃는 모양임을 알 수 있어요.
10. ④ 비가 그친 뒤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으니 ‘맑아졌어요’와 뜻이 비슷해요.
11. 출거나 무서워서 몸을 떠는 모양 ‘무서운 영화’, ‘떨었어요’가 단서예요. 출거나 무서워서 몸을 자꾸 떠는 모양이에요.
12. 작다 ‘품에 쏙 안겨요’를 보면 몸집이 조금 작다는 뜻을 알 수 있어요.
13. ① ‘밤새 숙제를 하느라’라는 단서로 몸이 지쳐 피곤하다는 뜻을 짐작할 수 있어요.
14. X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가 단서예요. ‘소란스럽다’는 시끄럽고 어수선하다는 뜻이에요.
15. 맨눈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이라는 뜻을 더해요. 도구 없이 보는 눈은 ‘맨눈’이에요.
16. ③ 글자 모양만 보고 뜻을 정하면 안 돼요. 문맥, 낱말 나누기, 비슷한 말 넣기로 짐작해요.
17. ④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서’, ‘가지만 남았어요’가 단서예요. 잎이 없어 쓸쓸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18. ‘콩닥콩닥’은 놀라거나 떨려서 가슴이 자꾸 뛰는 모양이에요.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와 ‘가슴이 뛰었어요’를 보고 긴장해서 가슴이 뛰는 모양이라고 짐작했어요. 뜻과 함께 앞뒤 문장에서 찾은 단서를 쓰면 잘한 답이에요.
19. ‘헛걸음’은 보람 없이 걷는 걸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곳에 갔는데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헛-(보람 없이)’ + ‘걸음’이니,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가는 걸음이에요.
20. 애쓴 일이 아무 보람 없이 끝남 ‘한 마리도 못 잡아’가 단서예요. ‘허탕’은 어떤 일을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이 끝나는 것이에요.